

## 북한 농민 시장의 실태와 시사점

홍성국 / 통일부 경제담당관

### 농민 시장의 기원과 변천 과정

1958년 일원적인 배급제도가 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농민 시장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주된 이유는 개인적 생산물을 처분하려는 농민들의 전통적인 욕구를 무시할 수 없었던 데다가 북한 당국이 세소 상품까지 일일이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농민 시장은 제한적이거나 주민들의 생필품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또한 국영상점망을 통해서 구입하는 경우에 비해서 구매 절차가 복잡하거나 까다롭지 않다는 이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다.

원래 농민 시장은 해방 이후 1950년까지 '인민 시장'의 이름으로 존속해온 기존의 재래식 시장이 그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통상 1 개군에 3~4 개소가 설치된 이 재래 시장은 거의 매일 개장되었으며, 읍·면 지역에서는 3일장이나 5일장 형태로 개장되었다. 이와 같은 재래식 시장은 1950년부터는 '농촌 시장'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기는 했지만 1958년 농업 협동화가 완료되기까지 계속되었다.

1958년은 농업 협동화가 완료되고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료됨에 따라, 개인의 상업 활동이 기본적으로 금지되면서 중앙 당국 주도의 일원적인 상업유통체계가 확립된 해이다. 1958년 8월 내각결정 140호에 의거하여 농촌 시장은 10 일 단위로 열리게 되는 '농민 시장'으로 개칭되었으며 거래 품목 역시 채소나 부식물 등으로 한정되었다.

60년대와 70년대에는 농민 시장이 더욱 통제를 받았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평양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중심 지역에 있는 농민 시장들은 전면 폐지되었다. 그 결과, 농민들은 자체 생산물을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판매하거나 필요한 물건과 물물 교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러나 70년대 중반부터 북한 경제가 침체를 보이면서 소규모의 불법적인 상품 거래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80년대 들어 국영상점망의 기능이 더욱 저하되고 소비품 공급 부족 사태가 악화되자 농민 시장은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1982년 김일성의 지시로 평양을 비롯한 각 도시 및 구역들에 상설 농민 시장이 개장되

는데, 이를 계기로 농민 시장은 점차 활기를 띠어갔다. 당시 농민 시장은 각 지역별로 그 수도 급격히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되는 상품의 수도 비교적 다양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농민 시장은 80년대 중반 곡물 작황이 좋아지면서 다시 통제되기 시작하였으며 개인간 거래는 암시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기존의 상설 시장들이 1987년에는 다시 주일장(매주 일요일 개장)으로 바뀌었고 그후 다시 10일장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북한 당국은 90년대 초까지 농민 시장의 거래 품목, 규모, 개장 시간 등에 대해 통제와 묵인 정책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북한의 농민 시장은 1993년 다시 매일장으로 환원되었다. 뿐만 아니라 90년대 중반 이후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농민 시장이 늘어나고 식량을 비롯한 상품의 거래량도 급격히 확대되었다. 그리고 시장의 개장 장소 역시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허용한 농민 시장뿐만 아니라, 주민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 가나 주택가 부근 등지로 확산되었다. 이때부터 북한 당국은 장마당 존재의 필요성을 외면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비법적인 장마당을 반공식화시켜 상인들로부터 장세(좌판 크기에 따라 2~15 원)를 부과하여 수입을 늘렸으며, 통제의 범위도 불법 유출 공산품 거래에 대해서만 단속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와 같은 농민 시장의 형성은 심각한 경제난과 함께 공식배급체계의 급격한 기능 저하로 거래 품목에 대한 통제도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식량이나 공산품 등은 원칙적으로 농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지만 당국이 이를 묵인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 농민 시장의 실태

### 거래 상품

원래 농민 시장의 거래 상품은 개인이 텃밭에서 생산한 채소류 등에 국한하여 허용되어왔으나,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농민 시장이 거의 암시장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상품이 공급되고 있다. 식량과 공산품의 거래는 금지되어왔으나 현재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식량 거래가 대부분 묵인되고 있으며, 공산품의 경우에도 생필품은 거래에 특별한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생산용 원자재, 기계 설비, 약재, 귀금속류 등도 거래가 금지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거래가 가능하다.

### 상품의 공급원

농민 시장에서 현재 거래되는 상품을 공급원별로 구분하면 ① 개인적 생산물, ② 공

식 부문에서 절취·유출된 상품, ③ 중국 등 제3국에서 유입된 상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적 생산물은 농민이 텃밭이나 혹은 뚝기밭(소토지), 부업밭 등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 축산물이나 가금류, 가내 수공품도 있다. 축산물이나 가금류 등은 개인이 사육한 돼지, 개, 닭 등이 주종을 이루며, 그밖에 기업소나 협동단체에만 허용된 양봉, 대가축 사육 등을 개인이 기관의 명의를 빌어 불법적으로 대행 생산하여 농민 시장에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최근 들어서 공식 부문에서 절취된 식량이나 각종 식용품 등이 농민 시장에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는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사회 기강이 해이해지면서 공식 부문(국정 가격)과 비공식 부문(농민 시장 가격) 간에 이중 가격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은 공식 부문의 상품들을 국정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농민 시장에 불법 유출시키면 많은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

현재 북한의 농민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필품(식량 이외의 여타 거래 품목)은 80% 이상이 중국 제품인 것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현상은 1987년 농민 시장이 통제되기 직전의 상황과는 극명한 대비를 보이고 있다. 1987년 당시 북한의 농민 시장 유통 상품(당시에는 식량 거래를 불허)의 구성비를 보면,

품목 수 및 거래 규모에 있어서 북한 상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북한산 제품이 크게 줄어들고 중국산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은 북한의 경제난으로 국내 상품의 공급이 급격히 줄어든 데 원인이 있으며, 동시에 90년대 중반 이후 중국 상품의 유입에 대한 통제가 줄어들어 한 가지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상품의 유입 경로는 공식 무역 이외에 보따리 장수로 지칭되는 중국인 개인 상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개인 상인을 통한 교역이 북한·중국간 교역의 약 80%에 달한다는 추정도 있다. 중국인 상인을 통해서 유입된 상품은 북한내 화교(약 5,000 명 정도로 추정) 혹은 거간꾼(북한 상인)에게 도매로 인도되며, 이들 화교나 거간꾼은 일종의 현지 소매상에게 인도하는 충도매상 역할을 하거나 혹은 직접 농민 시장에서 판매한다.

#### 거래 및 관리 방식

농민 시장의 유통 구조는 아직 극히 미발달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는 주로 물물 교환과 화폐 거래가 혼합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상품이 도매 상인에게 잡혀되고 다시 소매 상인에게 인도된 후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비교적 근대적인 시장적 유통 방식도 있지만, 소비자간 소규모의 상품 교환이 직접 이

루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물물 교환이 성행하며, 이 경우 현금은 상호 가격을 차감한 잔액 지급에 국한한다. 또한 전문 장사꾼의 경우에도 현금 판매보다는 물물 교환을 선호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중국 상인의 경우 중국에서 구입한 상품(주로 일용품)을 북한 시장에서 처분하고 그 대가로 받은 해산물 등 북한 상품을 다시 중국으로 반출하기 때문에 구태여 화폐 거래가 불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통화 가치가 불안정하고 태환성이 전혀 없는 북한 화폐를 취득하기 보다는 오히려 현물을 선호하는 것이 안전하며, 중국 상인의 경우 북한 화폐를 중국 인민폐나 경화로 불법 환전할 때 제공하는 수수료(약 20%)나 단속 위험 등을 고려할 때도 현물을 선호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품의 지역간 유통은 북한 주재 화교나 혹은 북한 방문 재중 조선족 등이 담당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기업소의 자재 인수원이 상품 유통에 참여하는 폭이 확대되고 있다. 기업이 원료 및 자재의 공급에 심한 애로를 겪게 되자 각 기업소는 자재 인수원을 지명하여 이들로 하여금 자재 확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재 인수원은 전국적으로 여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부업으로 도매상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화교나 자재 인수원 등은 상품을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보다는 현지 주민들에게 도매로 인도하고 이를 구매한 현지

주민이 소매상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도매상과 소매상간에는 현금 거래가 많으나 상호 교환할 상품이 있을 경우 가능한 범위까지 물물 교환의 형태도 병행한다. 각 지역별 소매상의 최소 자본은 약 5,000 원(북한 국내 통화) 정도로 추정되며, 이들은 현금이 부족할 경우 주변에서 빌린 돈으로 영업에 참여한다. 이때 사채 이자율은 대략 20~30%로 추정되고 있다.

농민 시장의 관리는 시·군행정경제위원회 상업과에 소속된 관리원이 담당한다. 1998년 9월 개정 헌법에 따라 시·군행정경제위원회가 지방인민위원회에 흡수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지방인민위원회 소속 기구가 시장을 관리하게 되어 있다. 시장 관리원은 주로 제대한 군인이나 사회안전부 요원, 사회보장 대상자(질병으로 퇴직한 간부) 등이 담당한다.

시장 관리비는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대략 상인들의 예상 수입에 비례하여 비용을 징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좌대의 규모에 따라 1일 2~15 원 정도를 징수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일반 주민에 대해서는 월 30 원, 중국인의 경우는 1일 50 원을 징수하는가 하면 농민들의 자가 생산물 판매에 대해서는 낮은 가격을 적용하거나 혹은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다.

## 가격 결정 방식

북한 당국은 농민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왔으나 가격의 결정에 직접 개입한 사례는 별로 찾아볼 수 없다. 농민 시장의 가격은 시장의 수급 상황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농산물이나 수산물 등은 계절별로 가격 변화가 심하며, 공산품의 경우에는 이러한 계절적 영향보다는 수급 상황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한다.

현재 북한 농민 시장의 가격은 주로 중국의 가격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의 쌀 가격이 상승하면 북한의 쌀 가격도 상승하고 북한의 건오징어가 중국에 대량 유입되어 중국 내의 건오징어 가격이 하락하면 북한의 건오징어 가격이 다시 하락하는 것과 같은 과정을 통해 가격을 조정한다. 대체로 북한 농민 시장의 가격은 중국의 가격에 환율(북한화의 對 중국 환율은 1 : 24 정도)을 적용하고, 여기에 약 10% 정도의 도매상 이윤율을 감안하면 도매 가격이 결정된다. 소매 가격은 도매 가격에 약 10~20% 정도의 소매상 이윤율을 적용하여 결정되며, 따라서 북한의 농민 시장 물가는 중국의 물가에 對중국 환율을 적용한 것보다 약 20~30% 정도 높게 책정되어 거래된다. 그러나 중국 상인이 북한에 공급하는 상품은 대부분 중국의 국내 시장에서 처분이 곤란할 정도로 저급한 상품이기 때문

에, 북한에 공급되는 중국제 상품의 실제 가격은 20~30%보다 더욱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상품 가격이 북한의 농민 시장 물가 결정의 준거가 되는 중요한 이유는 상품의 종류 및 거래량을 볼 때 중국산 상품이 워낙 많은 반면, 북한산 상품의 품귀는 매우 심각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 농민 시장의 최근 가격 동향

### 시기별 가격 변화

북한의 농민 시장 가격은 1997년까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1998년에 들어서는 다소 하락하는 추세이다. 서부 지역의 경우 1992년 12 원에 불과하던 쌀 1 kg의 가격이 1997년에는 약 80 원까지 상승하였으나, 지금은 그보다 약간 낮은 75 원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돼지고기의 가격 변동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동부 지역의 경우에도 1997년 쌀 1 kg이 125~140 원에 달했으나 현재는 90 원 정도로 하락하였다.

최근에 와서 동서 지역간 농민 시장 가격의 차이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다. 쌀값을 기준으로 보면 1997년에 동부 지역 가격이 서부 지역의 약 156%에 달했으나 1998년에 와서는 132%로 축소되었으며, 돼

〈표 1〉 동·서 지역간 시기별 가격 비교

	1997		1998	
	서부	동부	서부	동부
쌀(1 kg)	80	125	75	90
돼지고기(1 kg)	350	270	140	130

지고기의 경우 1997년 130%에서 1998년에는 108%로 양 지역간의 가격 차이가 크게 축소하였다.

1998년 들어서 농민 시장 가격의 전반적인 하락과 지역별 가격 차이의 축소가 동시에 발생했다는 점에 비추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추할 수 있다. 지역간 가격 차이의 축소는 상품의 지역간 이동과 상품 거래에 대한 규제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절대 가격의 하락은 통화량에 비해서 유통 상품의 수량이 증가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상품 거래에 화폐 사용이 확대되거나(화폐 유통 속도의 증가) 혹은 일반 가정의 경우 보유하고 있던 북한 화폐를 대부분 소진하고 일부 계층에 화폐 보유가 집중됨으로써 전체적인 유효 수요가 하락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품목간 상대 가격의 변화를 보면 식량난이 심화되기 이전(1994년 이전)에는 돼지고기 1 kg의 가격이 쌀 1 kg 가격의 약 130%에 불과하였으나, 식량난이 심화되자 돼지고기 가격이 쌀 가격의 약 440%까지 상승하였으며 1998년에 와서는 다시 200% 수준으로 상대 가격의 차이가 다소 축소되었

다. 돼지고기는 대부분 북한 내부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간주할 때, 이러한 현상은 식량난이 심화되자 일시적으로 돼지고기의 수요가 높았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돼지고기의 공급이 급격히 감소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즉, 식량난이 심화되자 돼지 사육 농가가 식량의 구입, 돼지 사료의 부족 등으로 이를 집중적으로 처분함으로써, 공급이 급격히 감소되고 식량난이 다소 완화된 후에도 돼지고기의 공급이 쉽게 회복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97년에 비해 1998년 모든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주곡에 비해 여타 상품의 가격 하락 폭이 비교적 큰 것으로 분석된다. 주곡의 상대 가격이 높은 것은 현재에도 여전히 심각한 식량 부족에 시달림으로써 식량 구입에 우선 순위를 두거나 혹은 앞으로 식량난이 지속될 것을 염려하여 미리 구매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 지역별 물가 비교

지역별로 물가를 보면 신의주, 나진·선봉 등 접경 지역의 물가는 대략 평준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함흥, 해주 등 접경 지역으로부터 떨어진 지역은 접경 지역의 물가와는 괴리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상품 가격은 높고 지역 특산물의 가격은 매우 저가이기 때문인 것으

로 분석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지역별 곡물류의 가격 차이는 전체 평균에서 ±20% 범위 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식 대용으로 간주되는 두부, 국수 등은 지역별로 차이가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육어류 및 기타 상품의 경우 지역별 차이가 상당히 심한 편인데, 이는 지역별 공급량(혹은 생산량)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해주의 경우 말린 명태나 소금 등의 가격이 매우 낮은 것은 이 지역에서 同상품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밖의 채소, 과

일류, 조미료, 간식 및 기호품, 기타 생필품의 경우 지역별 가격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기준 단위(무우 한 개, 빵 하나의 무게가 각각 다를 수 있음), 품종 또는 품질(맥주·소주의 용량이나 종류, 운동화의 종류)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해주나 함흥 등 비접경 지역의 경우 곡물 및 육어류를 제외한 여타 상품의 가격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는 아직 식량난의 타격을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주민의 구매는 여전히 주식 및 그 대용품에 집중

〈표 2〉 북한 농민 시장 주요 물가

(단위: 북한원)

분류	품목	단위	동부 접경 지역	서부 접경 지역	내륙 지역	국정 가격
곡물류	쌀	kg	75~80	75~80	85~90	0.08
	강냉이알	kg	35~40	40~45	45~50	0.03
	밀가루	kg	50~60	55~60	70~80	0.06
육어류	돼지고기	kg	170~180	140~150	190~200	10
	닭고기	마리	120~150	150~180	300~500	9
	말린 명태	마리	25~30	20~25	20~30	NA
채소 및 과일류	배추	포기	6~9	10	8~10	0.05
	다시마	kg	80~100	60~80	20~30	0.3
	사과	개	15~20	15~20	10~20	0.1
조미료	콩기름	kg	250~300	280~300	130~200	1.2
	고추가루	kg	200~280	150~160	100	1.5
	설탕	kg	120~140	120	80~150	2
간식 및 기호품	얼음과자	개	5	4	2~5	0.1
	꿀	500g	200	250	250	5
	맥주	병	60	40	50	0.5
기타 생필품	세탁비누	개	30~40	40~45	60~100	0.4
	페니실린	병	15~20	20	20~30	NA
	텔레비전	대	6,000~8,000	6,000	10,000~12,000	350

되고 있으며 부식류나 조미료 및 여타 생필품에 대한 수요는 낮기 때문이며, 지역적 특산물의 경우에도 가격이 낮은 것은 공급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나 접경 지역이 아니어서 교환 가능성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비록 비접경 지역이라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농민 시장의 가격은 상당히 평준화된 것으로 분석되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도시 지역의 일반 주민의 경우 식량의 약 70%, 생필품의 80% 이상을 농민 시장(혹은 암거래)에서 구입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북한 당국이 농민 시장에 대해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기 곤란할 것이기 때문이다.

## 농민 시장의 시사점

북한의 농민 시장은 이미 주민들의 생계 유지에 절대적인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경제적 조건이 다소 개선되더라도 과거와 같이 농민 시장에 대해 직접적인 통제는 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 지역의 일반 주민의 경우 식량의 약 70%, 생필품의 80% 이상을 농민 시장(혹은 암거래)에서 구입하고 있으며, 농촌 지역에서도 대부분의 생필품이 농민 시장에서 구입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농민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주민들의 생존 위협을 초래하므로 북한 당국도 시장 기능을 인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현재 농민 시장 등 제2경제의 기능은 계획 경제 부문을 대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정치적 이유로 공식배급체제를 폐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체제의 급진적인 변화가 없는 한 배급체제와 농민 시장의 기능이 병행하는 이중적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 당국은 농민 시장의 기능을 상당 부분 체제 안으로 수용하는 한편, 이를 통해서 실리 획득을 시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역간 가격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차익을 노리는 거래 행위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이며, 그 이윤 폭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정치 세력(노동당, 혹은 기타 권력 기관)이 농민 시장의 유통망에 조직적으로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농민 시장은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북한 경제에 몇가지의 긍정적인 시사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공식 배급망을 통해서 조달되기 어려운 상품들(특히, 식량이나 생필품)이 시장 기능을 통해 공급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는 극심한 물자 부족으로 발생한 지역간 공급 불균형(상품의 지역간 과부족) 현상 해소에 긍정적 효과를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생산적 측면에서는 공급 확대 효과도 있다. 개인이 북한 당국의 묵인 하에 생산된 상품을 자유



롭게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 의욕을 자극할 수 있으며, 특히 경제난으로 공식 부문에서 발생한 대규모 유희 인력에 부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산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8·3 인민 소비품' 생산 등과 같이 자원 재생 및 절감 노력을 촉진함으로써 자원 이용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것은 생산 증대 효과와 수반되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농민 시장 등 제2경제 부문이 확대될 경우 농업이나 제조업 부문보다는 주로 상업이나 서비스 등에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생산 증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폐기발의 경우와 같은 물적 생산 행위도 재산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수익에 집중할 따름이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생산력을 증대할 수 있는 투자 행위 등은 기대하기 곤란하다. 농민 시장에서의 거래 행위가 비록 제도권 안으로 수용되더라도 유통 부문의 체계적인 발전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이 장사를 하는 현상이 확대될 수 있고 과대한 거래 비용에 따르는 시간과 노력의 손실은 생산에 투여될 수 있는 노동력의 소모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긍정적 측면외에 부정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다. 농민 시장과 공식 부문간의 가격 차이가 확대될수록 공식 부문으로부터의 불법적인 물자 유출 유인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그에 수반되는 뇌물이나 불법 거래 등 사회적 일탈 행동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결과적으로 공식 부문으로부터 얻어지는 북한의 재정 수입이 감소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배급체제로부터 수취되는 상품의 양이 줄어들수록 직장의 화폐 소득의 의미가 감퇴되며, 이는 직장의 이탈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의 체제는 배급체제를 기초로 경제적 균등을 지향해왔으나 공식배급체제의 붕괴와 농민 시장의 확대는 소득 격차의 확대를 유발하게 되었다. 특히, 거간꾼, 자재 인수원, 시장 관리원 등 상품 거래에 직접 참여하는 집단의 경우 상당한 축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치적 신분과 관계없이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계층 분화가 촉진될 것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統**